AI 자립화 속 중국 기업들의 전략적 행보에 주목

Hana China Weekly | 2026.1.23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AI 반도체: 국무원, AI 반도체 기술 가속화 언급으로 자립 기대감 증가

- 1/21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공신부 부부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제조업에서 새로운 제품과 시나리오의 대규모 시연과 적용을 촉진하며 신흥 산업을 위한 국가 클러스트 기지를 설립할 것이라 발언. 인공지능 칩 개발을 위한 종합 표준화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제품 품질과 보안 강화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윤리 연구 및 관리 서비스도 마련할 방침. 또한, 이러한 조치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해결해 새로운 기능 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 1/21 SMIC (0981.HK, +3.7%), 화홍반도체(1347.HK, 5.2%) 등 파운드리 대표주, 본토 GPU, PCB 섹터 각각 6.6%/4.5% 강세 마감

무어스레드(688795.SH): 상장 후 첫 실적 발표에서 순손실 축소 전망

- 1/21 무어스레드는 상장 후 첫 잠정 발표 속 2025년 순손실이 약 9.5억~10.6억위안, 2024년 순손실 16억위안보다 손실폭이 크게 축소(YoY +34%~41%)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 무어스레드는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GPU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플래그십 제품인 학습·추론 일체형 풀 기능 GPU 연산 카드 MTT S5000의 성공적 출시를 제시. 다만 회사는 여전히 높은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흑자 전환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누적 결손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추가 설명.

- 이번 실적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엔비디아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기조 속에서 자국의 AI 칩 채택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1/27 발표되는 무어스레드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며 투자자의 기대감은 한층 강화되는 모습.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무어스레드 주가는 1/21~1/23 3영업일 동안 10.3% 상승 마감.

팝마트(9992.HK): 노동차 착취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소식에 반등

- 1/19 팝마트는 주당 177.7~181.2HKD에 140만주(2.5억HKD)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 지난해 주가가 정점 대비 하락한 이후 약 2년만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 것으로 주주환원 조치로 해석. 같은 날 Honor는 신규 Magic 시리즈 공개와 함께 Pop Mart의 대표 IP 'MOLLY'와 협업한 'Honor 500 Pro MOLLY 20주년 한정판'을 공식 출시. 해당 모델은 단순한 컬러 변경이 아닌 전용 디자인과 커스터마이징 요소, 한정 액세서리를 포함한 특별 에디션으로 정식 판매는 1/25부터 시작됨. 자사주 매입과 신제품 출시로 1/19 팝마트 주가는 9.1% 상승 마감. 추가로 1/21 약 1억HKD 규모의 50만 주의 자사주 추가 매입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주가 반등. 1/22 팝마트 주가는 6.0% 상승 마감.

플랫폼/테크

알리바바(9988.HK): 국영 원전 기업과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력 운영 예정

- 1/22 중국 현지 매체 커촹반일보에 따르면 알리바바 산하 AI 데이터 인프라 기업 상하이이치는 중국 국영 원전 기업(중국핵전, 야거얼 그룹 등)과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 핵융합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투자해 온 것에서 더 나아가 상업용 원자력발전 개발, 운영까지로 보폭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 민영그룹의 원자력발전 운영 참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알리바바는 안정적인 전력 조달과 민간 원자력발전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를 취한 것으로 보임. 향후 전력 조달 안정성 제고는 물론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을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유니트리(비상장): 2025년 로봇 출하량 5,500대 기록

- 1/20 유니트리는 유통사 및 대리점 정보에 따르면 2025년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출하량이 각각 6,000/5,500대를 기록했다고 발표. 이족 보행 모델만 집계한 수치로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이미 저가 양산 체제에 돌입했음을 입증.

휴머노이드: 국무원, AI 투자기금 휴머노이드 로봇 지원 자금으로 활용 예정

- 1/21 국무원은 국가 AI산업투자기금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언급.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작은 돌파구'로 삼아 체화 지능이라는 대형 산업을 견인하고, 기술 혁신과 반복적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발언. 이에 1/21 Dobot(300607.SZ) 주가는 9.4% 상승 마감.

차이나텔레콤(0728.HK): 화웨이 첨단 반도체만 사용해 LLM 개발 성공

- 1/20 중국 차이나텔레콤이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만을 사용해 전문가 혼합 아키텍처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힘. 차이나텔레콤 AI연구소가 공개한 대형 언어모델 '텔레챗3(TeleChat3)'는 1050억 개에서 최대 1조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갖춘 MoE 모델로, 화웨이의 어센드 910B 칩과 화웨이 주도의 오픈소스 AI 프레임워크 마인드스포어를 활용해 학습되었음. 이는 중국 개발진이 화웨이 칩만으로 MoE 모델을 학습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첫 사례로, 중국 내 AI 자립 역량의 기술적 진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콰이쇼우(1024.HK): 채권 발행으로 20억달러 자금 조달 예정

- 1/16 공시에 따르면 콰이쇼우는 해외 채권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해 총 2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 미화 15억달러와 위안화 35억위안 등 이중 통화 채권을 홍콩에서 발행할 예정. 조달 자금은 일반적인 기업 운영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1/21 WSJ는 콰이쇼우 산하 Kling AI의 MAU가 1,200만명을 돌파했으며 2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도. 플랫폼 테마 중심 섹터 상승 기여하며 1/21 콰이쇼우 주가는 3.6% 강세 마감.

미니맥스(0100.HK): 딥시크에 이어 두번째로 리창 총리와 회동

- 1/20 미니맥스의 CEO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동한 것으로 확인. 이는 지난해 급부상한 AI 스타트업 DeepSeek의 창업자 량원펑 이후, 기초 대형 모델 개발 기업 대표로는 두 번째로 국가 지도자와 만난 사례로 이번 회동은 최근 홍콩 상장을 통해 부상한 미니맥스의 영향력을 보여줌.

소비

팝마트(9992.HK): 노동차 착취 의혹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소식에 반등

- 중국 장시성 소재 협력 생산 공장에서 노동자 착취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 여론이 확산. 중국 노동감시 보고서에서 미성년자 고용, 과도한 초과근무, 근로계약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며 1/16 장중 최대 -7%까지 급락. 1/16 팝마트 주가는 5.6% 하락 마감.
- 1/19 팝마트는 주당 177.7~181.2HKD에 140만주(2.5억HKD)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 지난해 주가가 정점 대비 하락한 이후 약 2년만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 것으로 주주환원 조치로 해석. 같은 날 Honor는 신규 Magic 시리즈 공개와 함께 Pop Mart의 대표 IP 'MOLLY'와 협업한 'Honor 500 Pro MOLLY 20주년 한정판'을 공식 출시. 해당 모델은 단순한 컬러 변경이 아닌 전용 디자인과 커스터마이징 요소, 한정 액세서리를 포함한 특별 에디션으로 정식 판매는 1/25부터 시작됨. 자사주 매입과 신제품 출시로 1/19 팝마트 주가는 9.1% 상승 마감. 추가로 1/21 약 1억HKD 규모의 50만 주의 자사주 추가 매입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주가 반등. 1/22 팝마트 주가는 6.0% 상승 마감.

화웨이(비상장): EU의 사이버 보안법 개정 공개에 반박

- 1/2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화웨이, ZTE 등의 제품을 핵심 인프라에서 3년 내 완전히 철거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법 개정안을 공개.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의 단계적 퇴출을 명시한 이번 법안은 5G 이동통신망뿐 아니라 물 공급 시스템, 보건의료 기기, 국경 검문소 보안 스캐너 등 총 18개 핵심 인프라 분야를 포함. 이번 조치로 유럽 통신장비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존재.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반발하였으며 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객관적 기술 표준과 증거가 아니라 출신국을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배제하는 건 EU의 기본법 원칙인 공정성과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

핀둬둬: 테무 글로벌 점유율 아마존에 근접

- 1/20 SCMP는 국제우편협회 자료를 인용해 테무의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24%로 아마존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 테무는 2022년 출범할 당시 시장 점유율이 1%도 채 안 됐지만,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3년 만에 급성장하였음. 반면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2024년 대비 1%p 축소.

소비: 발개위, 2026년 내수 확대 전략에 집중할 계획

- 1/20 중국 발개위는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뚜렷한 공급 강세, 수요 약세 현상에 대처하고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내수 확대 전략 시행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서비스 소비를 핵심 정책으로 두고 내수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언급. 구체적인 소비 촉진 방안은 3~4월경 공개될 것으로 예상.

반도체

AI 반도체: 국무원, AI 반도체 기술 가속화 언급으로 자립 기대감 증가

- 1/21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공신부 부부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제조업에서 새로운 제품과 시나리오의 대규모 시연과 적용을 촉진하며 신흥 산업을 위한 국가 클러스트 기지를 설립할 것이라 발언. 또한, 이러한 조치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해결해 새로운 기둥 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 AI 훈련용 칩/이기종 컴퓨팅 등 핵심 기술 개발 가속화를 언급하며 기술 자립화 기대감이 확대. 1/21 화홍반도체(1347.HK, +5.2%), SMIC (0981.HK, +3.7%) 등 파운드리 대표주는 각각 5.2%/3.7% 상승으로 일제히 반등.

무어스레드(688795.SH): 상장 후 첫 실적 발표에서 순손실 축소 전망

- 무어스레드는 상장 후 첫 잠정 발표 속 순손실이 약 9.5억~10.6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2024년 순손실 16억위안보다 손실폭이 크게 축소(YoY +34%~41%)된 수준으로 무어스레드는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GPU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플래그십 제품인 학습·추론 일체형 풀 기능 GPU 연산 카드 MTT S5000의 성공적 출시를 제시. 2025년 매출 또한 14.5억~15.2억위안(YoY +231~247%)에 이를 것으로 예상. 다만 회사는 여전히 높은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흑자 전환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누적 결손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추가 설명.
- 이번 실적은 중국 정부가 미국의 엔비디아에 대응할 수 있는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기조 속에서 자국의 AI 칩 채택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1/27 발표되는 무어스레드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며 투자자의 기대감은 한층 강화되는 모습.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무어스레드 주가는 1/21~1/23 3영업일동안 10.3% 상승 마감.

통푸마이크로(002156.SZ): 첨단 매출 비중 확대로 순이익 확대 전망

- 1/20 반도체 후공정 기업 통푸마이크로는 첨단 제품 매출 비중 확대에 힘입어 2025년 잠정 순이익이 YoY +62.3%~+99.2% 증가하며 시장 기대를 큰 폭 상회할 전망이라고 발표. 이에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부각되며 1/21 주가는 상한가로 마감.

전기차/자율주행

전기차: EU 추가 관세 순전기차(BEV)에만 초점

- 1/16 유럽 매체 Euractiv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순전기차(BEV)에 적용 중인 추가 관세를 하이브리드 차량(PHEV)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1/20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관세 조치를 취하기 전 선행되어야 하는 조사와 관련해, 기존 조사는 오로지 전기차 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

위라이드(0800.HK): 로보택시 규모 1,000대 이상으로 확대

- 1/16 위라이드는 글로벌 로보택시 보유 대수가 1,023대로 늘어나며 1,000대를 돌파했다고 발표. 위라이드는 이번 성과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확장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자, 대규모 상업 배치를 향한 핵심 이정표라고 설명. 현재 위라이드의 로보택시는 전 세계 10개 이상의 핵심 도시에서 운행 중이며, 광저우, 베이징, 아부다비에서는 이미 완전 무인 상업 운행을 달성한 상황.

샤오펑(9868.HK): 저이자 금융 플랜 제공으로 경쟁력 제고

- 1/21~31까지 샤오펑은 자사 모델을 구매한 중국 소비자들에게 7년간의 저이자 금융 플랜을 제공. 테슬라, 샤오미, 리오토를 이어 4번째로 저이자 금융 플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소비자의 구매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경쟁을 줄이려는 의도로 판단.
- 1/19 허샤오펑 CEO가 SNS를 통해 자동차 표준 기반의 ET1 버전 첫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식 출시되었다고 밝힘. 프로토타입이 자동차 수준의 표준으로 개발되었으며 양산 준비의 중요한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설명. 샤오펑은 2026년 말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CATL(3750.HK, 300750.SZ): 닝보 론바이 에너지과의 대규모 계약 공시 논란 관련 CSRC 조사 착수

- 1/19 공시에 따르면 닝보 론바이 신에너지(688005.SH)와의 1,200억 위안 규모 장기 공급 계약 발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중국 증권 당국의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 1/18 CSRC(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중대 계약 공시와 관련한 허위 및 오인 소지 진술 혐의로 조사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힘. 1,200억위안의 확정성 및 공시 표현의 적정성이 조사의 핵심으로 추정. 회사 측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현재 모든 경영 및 영업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리오토(2015.HK): 2026년 EREV 경쟁력 회복이 목표, 판매량 55만대로 설정

- 1/22 리오토는 전략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중국 내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되찾는 것을 전체적인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발표. 2026년에는 Li L9 업그레이드에 먼저 집중할 계획으로 해당 EREV SUV에는 더 큰 배터리 팩과 자사가 개발한 M100 칩이 탑재될 예정. 또한, 리오토는 2026년 약 4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량 기준 약 55만 대에 해당함.

BYD(002594.SZ/1211.HK): Ford와 배터리 판매 계약 논의 중

- 1/16 WSJ는 BYD가 Ford와 하이브리드 배터리 판매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 협력이 성사될 경우 포드는 미국 외 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사용될 배터리를 BYD로부터 조달할 가능성이 큼. 다만 아직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상태.

바이두(9888.HK): 아부다비 내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 실시

- 1/17 바이두 산하 Apollo Go가 UAE 소재 모빌리티 기업 'AutoGo'와 아부다비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동 개시. 현재 AutoGo 앱을 통해 Apollo Go의 로보택시 예약 가능.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현황

편입 종목	주간 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YoY, %)		순이익(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 발표일
				2024E	2025E	2024E	2025E			
텐센트(0700.HK)	(3.2)	19.1	20.8	13.8	10.7	14.8	13.7	39.4	(0.3)	2026-03-18
알리바바(BABA.US)	7.1	29.3	9.9	3.9	10.3	(15.9)	20.7	(37.0)	(0.1)	2026-02-20
징동(JD.US)	3.8	11.8	9.8	13.0	5.3	(44.7)	17.6	(41.9)	0.2	2026-03-06
트립닷컴(9961.HK)	5.0	9.7	18.6	16.1	13.8	86.6	(40.6)	84.9	(1.3)	2026-02-24
텐센트뮤직(TME.US)	(3.3)	17.5	14.1	15.1	12.7	66.2	(10.4)	46.4	0.5	2026-03-18
콰이쇼우(1024.HK)	2.4	15.1	24.9	12.0	9.4	18.1	15.7	45.8	(0.1)	2026-03-25
하이얼스마트홈(600690.CH)	0.1	11.3	17.3	8.4	5.4	12.7	9.8	13.0	(0.3)	2026-03-27
샤오미(1810.HK)	(3.0)	19.6	18.7	28.5	19.5	83.6	3.0	79.2	0.0	2026-03-18
레노버(0992.HK)	(0.8)	9.0	24.6	13.5	7.6	16.8	8.0	6.5	0.0	2026-02-12
팝마트(9992.HK)	24.3	21.2	71.5	186.8	34.3	297.5	36.4	292.8	(0.3)	2026-03-26
미니소(MNSO.US)	3.7	17.1	21.8	25.0	19.4	(18.2)	46.3	287.7	0.0	2026-03-20
BYD(1211.HK)	0.1	22.4	17.2	7.8	15.8	(10.7)	32.9	(14.8)	(0.7)	2026-03-24
샤오펑(9868.HK)	(5.1)	-	(4.7)	92.1	42.4	적지	흑자	적지	(0.1)	2026-03-18
CATL(300750.CH)	(2.0)	22.8	23.3	16.7	25.0	35.6	25.7	35.0	(0.2)	2026-03-16
양광전력(300274.CH)	(4.7)	22.5	32.8	24.4	21.0	41.7	20.6	39.5	2.7	2026-04-24
북방화창(002371.CH)	(4.1)	50.9	19.4	31.6	27.0	24.8	34.7	25.6	(0.4)	2026-04-27
SMIC(0981.HK)	(2.5)	115.1	3.3	15.5	20.5	43.4	48.6	65.4	0.0	2026-02-11
해광정보(688041.CH)	11.1	200.7	13.8	58.9	52.0	69.9	54.7	63.4	0.0	2026-04-07
통푸마이크로(002156.CH)	15.7	64.4	8.3	15.2	15.6	80.8	28.0	99.3	0.0	2026-04-16
폭스콘산업인터넷(601138.CH)	(4.5)	34.2	20.4	50.7	69.5	50.9	80.4	46.8	0.0	2026-03-10
중지쉬창(300308.CH)	(5.4)	61.4	40.8	57.6	96.9	108.0	100.8	103.3	0.0	2026-03-30
포니AI(PONY.US)	1.7	-	(21.8)	16.0	35.7	적지	적지	적지	0.0	2026-03-25
위라이드(WRD.US)	2.3	-	(19.0)	67.1	98.5	적지	적지	적자	-	2026-03-13
허사이테크(HSAI.US)	0.1	70.7	7.1	52.0	44.7	흑자	58.3	흑자	3.5	2026-03-10
호라이즌로보틱스(9660.HK)	(4.2)	-	(47.0)	50.3	67.4	적자	적지	적자	0.6	2026-03-23
킹소프트(688111.CH)	0.5	87.2	15.1	17.3	19.3	15.2	22.3	17.3	0.3	2026-03-25
중신증권(6030.HK)	0.1	12.6	10.2	(14.5)	8.2	35.7	12.6	43.1	0.0	2026-03-26
평균	1.3	41.1	13.7	33.1	29.9	46.0	27.8	60.9	0.1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플랫폼 기업 Non-IFRS 기준, 홍콩 상장 종목은 반기 및 연간 실적만 발표,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예상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1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2026년 1월 2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